

분상제 적용, 분양가 22억에 시세차익 10억 '로또 청약' 출격

(전용면적 84㎡)

DL이앤씨 '아크로 리츠카운티'

9일 특별공급 시작으로 분양나서
지상 27층 8개동에 총 707가구
강남권 전통 부촌에 인프라 풍부
인근 신축아파트 최고호가 33억

아파트 분양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가운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 아파트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 서초구 방배삼익아파트를 재건축하는 아파트로 국민평형인 전용면적 84㎡의 분양가가 22억원 수준이다. 최근 경기도에서도 국평이 분양가 22억원에 완판(완전 판매)을 기록했던 만큼 청약자가 대거 몰릴 전망이다.

2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방배동 일원에 들어서는 '아크로 리츠카운티'가 오는 9일 특별공급을 시작



'아크로 리츠카운티' 단지 투시도.

/DL이앤씨

로 분양에 나선다.

단지는 지상 27층, 8개 동으로 총 707가구로 조성된다. 이 가운데 일반 분양 물량은 140가구다. ▲44㎡ 20가구 ▲59㎡ 73가구 ▲75㎡A 16가구 ▲75㎡B 17가구 ▲84㎡D 12가구 ▲144㎡ 2가구 등이다.

아크로 리츠카운티는 지하철 2호선 방배역이 400m 거리인 역세권이다. 반경 1km 내에서 방일초, 서초중, 상문고 등이 위치해 있으며, 반포동이나 대치동 학원가도 이용하기 편하다.

생활 인프라도 이미 갖춰져 있다. 신

세계백화점 강남점과 이마트 양재점, 코스트코 양재점, 롯데마트 서초점 등 대형 쇼핑시설을 비롯해 예술의전당, 국립국악원, 예술의전당 한가람디자인미술관 등 문화시설이 인근에 있다.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강남베드로병원 등 대형 종합병원도 가깝다.

규제 지역인 만큼 최상의 입지에도 분양가는 낮게 결정됐다.

DL이앤씨가 시공하는 아크로 리츠카운티 분양가는 평형별 최고가 기준으로 ▲44㎡ 14억3700만원 ▲59㎡ 16억7630만원 ▲75㎡ 20억6600만원 ▲84㎡ 21억7120만원 ▲144㎡ 38억4170만원 등이다.

인근에 신축으로는 2021년 입주한 '방배그랑자이'의 전용 84㎡가 지난 10월 29억3000만원에 거래됐다. 현재 나와 있는 매물은 모두 30억원 이상이며, 최고 호가는 33억원이다. 이에 따라 아크로 리츠카운티는 10억원 안팎의 시세

차익을 기대해볼 수 있는 '로또 청약'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분양 관계자는 "아크로 리츠카운티는 강남권의 전통 부촌으로 꼽히는 방배동 역세권 입지에 위치해 편리한 생활 환경을 누릴 수 있는 데다 주변의 다양한 개발 호재로 높은 미래가치를 기대할 수 있다"며 "특히 DL이앤씨의 하이엔드 브랜드인 아크로로 공급되는 만큼 수준 높은 상품들을 선보일 예정이어서 수요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크로 리츠카운티가 들어서는 서초구 방배동 일대는 정비사업이 활발하게 추진 중이다. 서초구에 따르면 방배동은 총 12개 구역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 예정돼 있다. 사업이 모두 완료되면 1만2000여 가구가 넘는 신형 주거타운으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수능 12월 시행, 수시·정시모집 통합해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고3 2학기 교육과정 정상화' 제안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한 달 늦춰 12월 시행하고, 대학 수시와 정시 모집 시기도 수능 이후로 통합 실시하자고 교육부에 제안했다. 대학 중심 입시 일정으로 고교 3학년 2학기 교육과정 운영에 어려움이 따르면서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향후 교육 정책 변화로 이뤄질 지 주목된다.

정근식 교육감은 2일 “고3 2학기 교육과정이 원활히 운영되지 않는 문제는 현재 우리 교육계가 해결해야 할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라며 “고3 2학기 교육과정 정상화를 위한 서울시교육감 제안” 발표문을 내놨다.

현재 고3 2학기는 출결 및 내신성적



등의 교육과정 내용이 대입에 반영되지 않는다. 이에 수능을 치른 고3 학생들은 교과 교육활동에 참여도가 낮고, 대입 수시·정시 모집의 논술, 면접, 실기 준비 등으로 조퇴 및 결석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또한 수능 이후에는 학생 개인별 계획에 따른 교외체험학습 신청자가 급증해 교실 공동화 현상으로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어렵다는 학교 현장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정 교육감은 고교 3학년 2학기 출결과 내신 성적 등을 대입에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수능을 12월 시행하고, 수시와 정시의 모집 시기도 통합해 대입 전

형을 3학년 2학기 후반부에 시행하자고 건의했다.

정 교육감은 “2학기 성적도 대입에 반영해야 대학입시에 고등학교 3년 간의 교육활동 내용이 온전히 반영될 수 있으며,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다”라며 “수능 12월 시행으로 학년 말 공백기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근식 교육감은 “고등학교 교육은 대입 준비를 위한 과정으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과 미래 사회를 준비하는 본질적 교육의 장이어야 한다”라며 “교육부는 대입 전형으로 인해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적극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 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현진 기자 hjh@



부산 기장군 소재 원자력환경복원연구원 본원 전경.

/산업부

‘원전해체 지원’ 원자력환경복원연구원 개원

산업부, 부산 기장군서 개원식

영구정지된 고리·월성 1호기 해체를 지원하는 연구원이 본격 가동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부산 기장군 소재 한국원자력환경복원연구원(원복연) 신축 본원에서 최남호 산업부 2차관 등 정부, 지자체 및 산학연 주요 인사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비영리 공익법인인 원복연은 초기 원전인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가 영구정지됨에 따라 원전해체 기술 자립을 통해 안전한 해체를 지원하고, 해외 원전해체 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됐다.

국내 원전해체산업의 종합 플랫폼으로서 원전해체산업을 육성하고 중소기업

업 지원의 핵심 거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원복연은 원전해체 기술을 실증하고 고도화하는 한편, 해체 폐기물의 방사능 핵종과 농도를 분석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원전해체를 지원한다.

또 해체기술사업화를 지원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해 국내 원전해체 산업 육성과 글로벌 시장 진출도 지원할 계획이다.

원복연은 현재까지 완공된 시설을 활용해 방사화학분석,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한편, 공사가 진행 중인 실증분석동과 경주에 별도로 건립 중인 중수로해체기술원도 2026년까지 완공해 시설 인프라를 완성할 예정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청년 쉬었음’ 인구 42.2만명… 1년새 25% 늘었다

한은, 쉬었음 인구증가 배경·평가
자발적 쉬었음 28%, 비자발적 72%
‘구직단념자’ 가능성에 사회적 우려

올해 들어 청년 42만명이 일도 취업 준비도 안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청년층의 ‘쉬었음’ 장기화로 노동시장에서 영구이탈하거나 니트(NEET)족(일할 의지도 없고 교육, 고용, 훈련 등을 모두 거부하는 ‘구직단념자’)화 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청년층 쉬었음 인구증가 배경과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청년층 쉬었음 인구는 작년 4분기 33.6만명에서 올 3분기 42.2만명으로 지난 1년간 25.4% 증가했다. 이중 자발적 쉬었음과 비자발적 쉬었음의 기여율은 각각 28.2%, 71.8%로 동 기여율은 아직 기간 1년 이내인 쉬었음 인구에 한정해 산출될 수 있다.

쉬었음 인구 비경제활동인구는 주된

활동에 따라 육아·가사, 교육기관 통학, 취업·진학 준비, 연로·심신장애, 쉬었음 등으로 분류한다.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않고 쉬는 것이 아니라 취업을 경험한 이후 더 이상 구직을 하지 않고 쉬었음으로 이탈한 사례가 늘어났음을 의미한다.

고용지표는 양호하나 올해 들어 쉬었음 인구가 빠르게 증가했다. 실업률 등 노동시장 슬랙 지표에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가운데 쉬었음 인구가 늘어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이다.

지난해 기준 쉬었음 인구는 비경제활동인구 중 14.5%(235만명)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은 특별한 사유나 교육훈련 없이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잠재적인 노동력 손실을 나타낸다. 비경제활동인구를 구분해 보면 육아·가사, 교육·직업훈련, 연로·심신장애 비중이 가장 높으며 그 다음이 쉬었음이다.

특히 청년층 쉬었음 인구를 일자리를 그만둔 사유별로 보면 자발적으로 그만두고 쉬는 경우가 추세적으로 증가했다. 비자발적으로 그만두고 쉬는 경우도 올해 들어 크게 늘어났다.

고령층 60세 이상과 핵심연령층 35~59세의 쉬었음 비중이 큰 변화 없이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반면, 청년층 쉬었음 비중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늘어난 이후 지난해 4분기 22.7%에서 올 3분기 29.5%로 증가했다. 청년층 쉬었음을 취업경험 유무로 나눠 살펴보면, 최근 늘어난 쉬었음 증가는 대부분 취업경험이 있는 청년층에서 나타나고 있다.

한국은행은 “최근 나타난 청년층 쉬었음 증가는 구조적 요인과 경기적 요인이 동시에 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며 “청년층의 쉬었음 상태가 장기화되면서 이들이 노동시장에서 영구이탈하거나 니트족화 될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